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7년 11월(위경성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경,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59번(주께선 나의 피난처)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주고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루카 16,19-31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경을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①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
 - ② 위령미사 (날짜- 11월 3일 장소- Gate of Heaven 시간- 10:30)
 - ③ 북가주 전체 울뜨레아
(날짜- 11월 10일 장소-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시간- 09:00~16:00)
 - ④ 다음 모임을 결정한다.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61번(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MEMO

교회와 복음 선포와의 상호 관계

누구든지 신약성경을 펴서 원시 교회의 생활 및 활동 양식은 물론, 각 발전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교회와 복음 선포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의 복음 선포 활동에서 생겼다. 그 활동의 당연한 결과요, 그 활동이 위한 것이며, 그 활동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결과가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사실 “하느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삼천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졌다.”

이와 같은 사명에서 생긴 교회는,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진 교회로서 파견되었다. 영광의 주님은 성부께로 돌아가셨지만 교회는 지상에 남아 있으면서 떠나셨지만 머물러 계신 예수님의 새로운 현존에 대한, 불분명하면서도 명백한 표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회는 그 표징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결코 스스로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밀접한 생활이 공동 기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느님 말씀의 청취, 실질적 형제애, 떡의 나눔 그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생활이 드러나서 감탄과 회개를 불러 일으켜 기쁜 소식의 좋은 선포가 되고 설교가 될 때이다. 이와 같이 전 교회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고 있으며, 신자 각 사람의 활동은 전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교회 자체가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 생활과 친교가 가능한 희망의 공동체,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러한 공동체는 믿고 바라야 할 것과 사랑의 새 계명을 계속 들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 백성은 세속 사회 속에 살면서 때때로 우상의 유혹을 받고 있기에 주님께 복귀하고 주님께 다시 불리어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하느님의 크신 일들”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복음 선포에 있어, 교회로서 참신한 활력과 힘을 보유하려면 교회 자신이 언제나 복음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표명하고, 1974년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재확인된 바이지만 교회가 전 세계를 참으로 복음화하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쇄신으로 교회 자체가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교회는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의 보관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신약의 약속,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원천, 구원의 길... 이 모든 것은 교회에 위탁되어 있다. 교회가 귀하고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과 복음 선포의 내용은 감추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파견되고 복음화된 것이라면, 교회도 복음 선포자를 파견해야 마땅하다. 그러한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이미 받은 선교의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파견한다. 즉, 그들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봉사자들로서 맡겨진 복음을 가장 충실하게 전해야 한다. 교회나 선교사들은 복음의 주인도 아니고 그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

<성경묵상>

‘라자로’ 를 위하여

루카 16,19-31

16장의 마지막 비유는 부유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데에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요구하는 정의와 관대함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불에 떨어지며 라자로의 고통은 곧바로 “아브라함의 품”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안깁니다.

복음에서 부자는 라자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자기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어 볼까 하고 대문간에서 기다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못 본 체 합니다. 그의 삶의 내용과 목적은 안락과 호사뿐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서는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반드시 부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특히 루카복음서가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나오는 첫 번째 ‘행복 선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입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루카 복음서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입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루카 복음서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는 정신적이나 영성적 가난이 아니라 일차적 가난, 곧 물질적 가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율법과 예언자들의 권유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베풀었다면 하늘에서 그를 위해 변호하고 탄원해 줄 친구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라자로의 불행을 덜어 주는 일을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장소에 있는 그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라자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라자로의 고통을 위해 중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권위에 근거하는 구약성경의 비교적 작은 요구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하는 더 큰 복음서의 요구들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눔>

1. 10일 후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죽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2.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무관심한 적은 없습니까? 살펴봅시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